

제26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 정답 및 채점기준표 [B형]

문항번호	정 답 (객관식)	배 점	문항번호	정 답 (객관식)	배 점	
31	③	4	36	③	4	
32	①	4	37	①	4	
33	③	4	38	④	4	
34	②	4	39	②	4	
35	④	4	40	②	4	
답지 빈도	답지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수	2	3	3	2	10

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주관식)	배 점
41	<p>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통해)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현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역사 소설의 가치다.</p> <p>1) 연결 표현이 어색한 경우 -2 ~ -6 2)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맞춤법 오류 -1 ~ -2 3) 제시된 조건(순서대로, 모두, 40-60자, 한 문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4) 제시된 주제를 쓰지 않은 경우 -2</p>	10
42	<p>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혼자만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p> <p>※ 의미는 통하나 고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2 ~ -3 ※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사용했으나 문법적 오류가 심한 경우 -4 ~ -5 ※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 -6 ~ -8</p>	10
43	<p>연주하느냐에 따라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연주하는지에 따라 곡의 분위기가 바뀌기</p> <p>※ 의미는 통하나 고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2 ~ -3 ※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사용했으나 문법적 오류가 심한 경우 -4 ~ -5 ※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 -6 ~ -8</p>	10

- 제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시 내용 당 -5
- 글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 -4
- 분량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 -1 ~ -5
- 빈번한 문법, 어휘, 맞춤법 오류 -5 ~ -8
- 글의 특성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문체를 사용했을 경우 -1 ~ -3

<모범 답안 예시>

최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신문사나 방송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보가 중요하며 공개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도 옳다. 하지만 보도라는 것이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청자가 알고자 하는 혹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 만큼 보도는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집단 혹은 개인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고 그 결과 잘못된 추측과 의문들을 양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정보 공개를 제한하게 될 경우, 이는 특정 이익 집단이나 권력 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들이 은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건 보도 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이지 관련자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제대로 보도하려면 내용의 선별과 보도 방식에 있어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대중매체는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단순히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의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때 국민의 알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44

30